+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광주지역 반발 지속

광주시 "대통령 공약 반드시 이행돼야" 18개 대학 "인재 역량 광주가 최적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 광주지역 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입장문을 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조성' 약 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광 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인 'AI

생태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이는 AI 전문 가와 산업계는 물론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실" 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약속 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광주를 지목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하겠다고 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또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은 민간 데이터센터와 달리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인프 라를 구축하는 일이자, 국가 미래산업의 디딤돌 을 놓는 일"이라며 "이 사업은 기업의 이해관계 로만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광주가 부

지·전력·용수 등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지 가격은 솔라시도가 저 렴하겠지만 미래 가치는 광주 첨단3지구가 우위 에 있다. 총사업비 2조5천억원 중 부지비는 300 억원(1.2%)에 불과해 입지 결정의 주요 요인이 라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번 공모 무산은 기업의 돌변으로 인한 결과"라며 "광주가 아무런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아 유치에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 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광주시의 노력과 시 민들의 염원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AI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AI 생태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

광주지역 18개 대학도 '국가AI컴퓨팅센터' 광 주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대학교 등 광주 주요 18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국가AI컴퓨팅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 돼야한다"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광주가 지난 수년간 국가 AI 산업의 거점도시로 쌓아온 인프라와 인재, 시민 역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

18개 대학 총장들은 "광주는 인프라·인재·시 민의 참여가 결합된 AI 산업의 최적지"라며 "A

I컴퓨팅센터 설립의 국가적 의미와 광주의 준비 된 역량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인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이 지역민의 염 원과 광주의 역량을 반영해 실질적 정책으로 이 어지길바란다"고호소했다.

광주지역 대학들은 앞으로 정부·교육청·산업 계와 협력해 AI전공 신설, 융합교육, 산·학·연 공동 연구 확대 등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지 속 추진하고 AI 기반 창업, 산업 현장 인력 양성,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AI 생 태계 조성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변은진·박현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택시운수종사자 친절·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택시'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택시업계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택시업계, 친절·안전 결의 400여명 '서비스 품질 제고' 다짐

광주시는 23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 시운수종사자 친절·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신 뢰받는 택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결의대회는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택시업계의 서비스 품 질 제고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는 택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 시교육감을 비롯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 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택시업계 관계자, 운수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 석해 친절·안전 운행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친 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에 김범모씨

내달 18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광주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에 김범모(59·사 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는 전 날 김 이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1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은 지원자 부 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1·2차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단 1명에 그치면 서 김 후보자가 그대로 지명됐다.

구

· 독 신 청

및

배

사

卫

062

650

2022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는 조례에 따라 시장과 일치한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자칫 단년 임기로 끝날 수 있 어 지원 기피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사청문 절차 부담도 복합적으로 작 용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원, 서울외 국환중개 전무이사, 광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전문 성부족문제를중점검증할방침이다. /변은진기자

"전남세계 김밥페스티벌로 오세요"

오늘 개막…3일간 쿠킹대회 등 다채

전남도가 24일부터 26일까지 목포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에서 2025 전남 세계 김밥페스 티벌을 개최한다.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은 우리나라 김 생산 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의 김 산업 경쟁력을 널 리 알리고 김밥을 매개로 남도의 맛과 멋을 세 계에 소개하기 위한 대표 먹거리 축제다.

첫날인 24일 케이팝(K-POP) 커버댄스 공연 과 함께 막이 오르고 전남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기업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된다. 어 린이 관람객을 위한 인기 캐릭터 '티니핑 싱어 롱 쇼' 특별무대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25일엔 김밥 쿠킹대회를 통해 관람객이 김밥 을 만들며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제푸드아트협회와 협력해 선보이는 '아트김밥 전시관'과 '라이브 토크쇼' 는 협회가 직접 기획·운영해 김밥을 예술적 시 각으로 재해석한 특별 전시로 꾸며진다.

마지막 날인 26일엔 전남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싱싱 경매쇼'가 열려 현장감 넘치는 즐 길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색 김밥 시식·판매, 로봇이 직접 김밥을 만들고 컷팅하는 AI 시스템 시연 등 오 감을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 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장 곳곳에는 ▲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 하는 주제존 ▲아트김밥 전시와 라이브 토크쇼 가 펼쳐지는 체험존 ▲전남 특화 김밥을 맛볼 수 있는 마켓존 ▲세계 각국의 김밥을 만나보는 월드존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존 등 5개 테마존이 운영된다. 스탬프 랠리에 참여한 관람 객에게는 김 세트 기념품도 제공된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김밥은 남도의 풍요 로운 맛과 따뜻한 정성을 담은 대표 음식"이라 며 "김밥페스티벌이 전남 수산물과 문화를 세 계에 알리고 전남산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양시원기자

▶1면 'AI컴퓨팅센터'서계속

◇전남,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발판으로

전남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라는 역사 적 기회를 단순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연관 산업 유치로 클러스터를 확장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유치에 만족하지 말고 전력・ 냉각 기술, 장비 유지보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적극 유치해 완전한 산업 클러스터 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인재 양성·확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 다. AI 산업의 성패는 결국 인재에 달려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 광주권의 우수한 교 육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준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갑)은자 신의블로그를통해 "심사과정에서광주·전남이역 할분담할수있는방안이수립되길기대한다"며"재 생에너지와 냉각수, 저렴한 토지 등 전남 해남의 특 성과지역거점국립대·정부출연연구중심대학이입 지하고 연구·실증이 가능한 도심지라는 광주의 특 징이만나면분명시너지가날것"이라고강조했다.

◀ 광주매일신문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의하여 임으로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소재지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2025. 10. 20. ~ 11. 20)

2. 개장사유: 물맞이 치유의 숲 경관 관리

무안군 공고 제2025-1217호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4. 개장방법

■ 복사기 ■ 컴퓨터 ■ FAX ■ 카트리지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임대 ■A/S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각종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소유자 │ 기수 │ 비고

무안군

무안군

대명OA T.375-5880

급 / 품 / 목

-10미터 포장도로접 1,110평 / 전남대2,300미터거리-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주거지역 땅 평당330만원 급처분

외상대금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빌려준돈 임대료 '구 상 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 - IIOSB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이전보상비 및 이전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신 고 처: 무안군청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 ☎ 061-450-5593 7.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대상 : 분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 일체 - 신고방법 : 연고 (관리) 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 분 모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합니다. - 분묘의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합니다. - 분묘이장비는 무안군청 산림공원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 신고자께서는 분묘개장 에 따른 개장 전 중 후의 사진과 연고자증명서 (즉보, 호적, 제적등본 등), 인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 등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마입니다. - 분묘의 정확한 위치는 군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거나 무안군청 산림공원과로 방문 - 문교의 성확한 위시는 군 탑성시작 함께 변경을 확인하거나 구인군정 전탑성관과도 병문하여 도면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묘의 이전 대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 이 공고에서 누락된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내에 소재한 추후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분묘에 대해서도이 공고로 갈음하며, 분묘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공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임야

임야

물맞이 치유의 숲 관리에 따른 분묘 개장 2차 공고

물맛이 치유의 숲 내 방치되어 있는 분묘를 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분묘 이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이장 (개강)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지번

436 - 70

2025년 10월 20일

무 안 군 수